

2014. 1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4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4.12.19	대전MBC 대회의실	9/10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박희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신원식 창사50주년 기획단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9	-	-	15	-	15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5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11월
교양	로드 다크<테마기행 길> 시청자와 교감 할 수 있게	<테마기행 길> 시청자와 교감 나눌 수 있게 구성과 편집, 소재선정 함	11월
교양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건강관련 프로그램 시청자와 교감하며 내실화	11월
교양	창사 50주년 다크멘터리 <충청> 내용 구성 의미 있어	다큐 <충청> 제작 치밀한 기획으로 함	11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소재선정 적절하게	시사프로그램 <시사플러스> 소재선정 시청자들의 기대에 맞게 선정	11월
교양	사회공헌 프로그램 <대한민국 김장 나눔 대축제> 과정 영상으로 소개해주길	<대한민국 김장 나눔 대축제> 준비과정서 생방송 진행까지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함	11월
보도	연말연시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보도	연말연시 맞아 청소년 문제 계속 보도	11월
교양	<대한민국 김장 나눔 대축제>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발전하길 기대	<대한민국 김장 나눔 대축제> 매년 행사로 확정	11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동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배려(소개 등)	외국인 여성 배려(소개, 제작 관련 도움을 주고 있음)	11월
교양	기상캐스터 역할, 발음 유의	기상캐스터 발음 등 교육 강화	11월
보도	기자의 발음약화로 뉴스전달력 떨어져	건강상태 안좋아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 리포팅할 때 개선함.	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5.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2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건강플러스(12월13일)를 모니터하였다. 추운 겨울 날씨와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많은 요즘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과 체장염을 주제로 다루어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한다. 저체온증과 관련하여 몸에 열이 나게 해주는 음식으로 첫째는 콩치, 둘째 인삼, 마지막 생강을 들었는데 각각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각 음식의 특성을 안내해주었다. 식재료를 소개할 순서를 정해서 진행순서를 자막으로 미리 띄어준다면 “아 이번엔 다음 요리법이구나!”하고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tv주치의”에서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많이 발생하는 체장염을 다루었는데 체장의 의미, 위치, 기능을 잘 알려주고, 체장염의 발생요인 중 음주가 큰 요인인데 사람들이 막걸리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근거 없음을 제시하여 시청자들을 각성시켜 주었다. 전문가가 체장염의 원인, 종류, 경과, 증상, 중요도 등 체장염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다루어 줌으로써 시청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방송이었고 실제 환자들의 발병원인과 진단방법, 치료과정 등을 예시로 들어주어 현실감 있는 방송이 되어 좋았다(한찬희).</p>	<p>건강플러스는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건강을 주제로 건강상식과 미처 알지못 했던 질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메인 게스트로 출연하는 의사 선정이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의사 분들이 처음 출연하시는 경우가 많아 방송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경우를 많다. 그리고 공익성,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특이한 주제를 제외하고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섭외, 방송하고 있다.</p> <p>이와 함께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주제를 편안하게 풀어서 소개하기위하여, 요리코너와 건강을 결합한 맛있는 처방전이라는 건강음식 코너도 운영하여, 편안한 시청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하고 있다.</p>	○		
교양	<p>테마여행 길(12월 16일) “오래된 개척의 땅 새만금, 낯선 풍경을 만나다”가 방송되었다. 바다였던 새만금이 육지가 된 모습을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시도하여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이 아름답고 역동적이었다. 상황에 맞는 음악과 나레이터의 설명이 분위기와 딱 들어맞아 방송에 더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 전반적으로 테마여행이라는 주제에 맞게 주제와 영상, 음악이 함께 잘 어우러진 방송이 보기 좋았다. 마무리는 월드뮤직사운드의 아름다운 연주와 새만금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번갈아가며 마무리하였는데 방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새만금의 여러 가지 모습이 충분히 표현되어 구성력과 편집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한찬희).</p>	<p>테마여행 “길”은 지역MBC에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테마여행이란 타이틀에 적합하게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제작에 임한다. 앞으로도 계열사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인 만큼 시청자와 교감을 하며 구성을 하겠다.</p>	○		

<p>교양</p>	<p>대표적인 지역정보프로그램인 생방송 ‘아침이 좋다’(12월 4일)에서는 우리 지역의 축제와 다양한 현장들을 소개하여 충청권의 문화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행사 및 전시 소식은 지역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놀이 행사, 철새도래지 천수만, 안동 참마 등 각 주제에 적합한 개성 있는 리포터들은 다양한 현장의 아이템들을 흥미롭게 소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p> <p>특히 본 방송에서 지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자소개는 시청자들이 방송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다만 아나운서들이 문자 소개를 할 때 시선을 지나치게 태블릿에 고정하는 모습은 시청자로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 아나운서들이 번갈아 카메라에 시선을 주거나, 카메라 쪽에 시선을 두고 문자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될 것이다(오덕성).</p>	<p>지역의 정보를 빠르고 편안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lt;생방송 아침이 좋다&gt;제작진은 다양한 행사와 고향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 전달에 보다 더 노력하겠다.</p> <p>&lt;시청자 문자 소개&gt;는 공중파 TV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쌍방향 소통 코너다. 제작진이 청취자들에게 생방송으로 사연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고, 프로그램 중간과 말미에서 시청자들이 보내온 문자를 소개하는 코너이다.</p> <p>생방송으로 진행되고, 태블릿으로 표현되는 문자의 가독성이 떨어져 생기는 현상이지만, 보다 더 매끄러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겠다.</p>	<p>○</p>	
<p>보도</p>	<p>테마기행 길 「오래된 개척의 땅 새만금, 낮선 풍경을 만나다」 편(12월 16일)이 방송되었다.</p> <p>이번 테마기행 길에서는 해질 녘 하늘이 바다에 내려앉아 수평선이 사라진 것처럼 낮선 두 남녀가 여행을 하면서 경계가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될 것임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여행의 주인공 공들은 스피드를 즐기면서 사는 남자와 가야금 연주자인 여자로 삶의 속도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오래된 개척의 땅 새만금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떠나는 시간이었다.</p> <p>먼저 새만금의 자랑거리인 광활한 면적을 동력패러글라이딩을 통해 소개하였는데, 이는 다소 길어 지루하였지만 새만금의 드넓은 땅을 확인하고 경험자의 인터뷰를 담은 등을 통해 여행지의 소개로는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새만금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매력을 소개하면서 사진작가들의 작품과 가야금의 연주는 새만금의 첫인상을 떠올리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여행지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의 주요특징이 잘 드러났다고 판단된다(오덕성).</p>	<p>테마기행 길 「오래된 개척의 땅 새만금, 낮선 풍경을 만나다」편은 타이틀에 맞게 제작하려고 노력하였다.</p> <p>지역MBC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각 계열사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청자와 교감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과 향기가 묻어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정진하겠다.</p>	<p>○</p>	

<p>교양</p>	<p>창사50주년 &lt;다큐멘터리 총칭 (4부작)&gt; 중 최종회인 4부(12/1) “천년의 기다림 계룡산”을 시청하였다.</p> <p>계룡산편은 다양한 공중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특히 봄철부터 가을 단풍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현장 촬영으로 제작진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p> <p>계룡산의 특징을 젊은이들이 찾는 산, 생명공존의 산으로 부각하여, 젊은 사람들과의 현장인터뷰와 특별한 생명체인 호반새와 이끼도롱뇽을 촬영하여 보여준 것도 좋은 편집 내용으로 비쳐준다.</p> <p>계룡산의 여러 명소로서 관운봉, 남매탑 등을 소개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대전사람들이 많이 찾는 삼불봉, 은선폭포도 포함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화면으로는 산의 정상인 천단을 보여주었는데,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p> <p>계룡산내의 유명 사찰로 공주지역의 갑사는 다양한 보물이 있는 문화재의 보고로서, 대전지역의 동학사는 국내 3대 비구니도량으로서 소개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일반 대중을 위한 절 음식 준비를 취재한 것도 특집프로그램으로서 오래전부터 사전 기획, 준비한 노력이 돋보인다.</p> <p>계룡산의 전설이 담겨 있는 용추계곡(암용추/숫용추)이 현재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통제구역임에도 현장을 찾아 전설을 소개하며, 샌드아트를 활용하여 용의 만남과 승천을 보여준 것도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시도였다.</p> <p>계룡산은 예로부터 풍수지리상 정기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왔으며, 따라서 다양한 신흥종교가 범람하고 무속인들의 집결지였는데, 본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다룬 것은 적절한 의도이나, 기천문의 수련과 무당굿하는 모습, 무속인과의 현장 취재 등이 다소 오랜 시간 방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김명수).</p>	<p>좋은 지적 감사하다.</p> <p>계룡산 천황봉의 천단은 촬영시 계룡대 보안부대 간부가 동행하여 서쪽과 남쪽 방향은 촬영 자체가 제한되는 등 제작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 관계로 다양한 장면을 촬영하기 어려웠다.</p> <p>무속인이나 기천문 관련 분량에 관해서는 초기 기획의도가 영산으로서의 계룡산을 보여주려던 것이어서 다소 길었던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p>	<p>○</p>	
<p>보도</p>	<p>시사광장(12월7일)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 남은 과제는?”이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을 가졌다.</p> <p>대전시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도시철도에 대한 방식이 결정된 후 바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신속하게 선정한 것으로 시의적절 하였다.</p> <p>대전광역시장이 패널로 직접 참여하여 건설방식 결정과정과 트램방식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서 시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p>	<p>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 직후이기 때문인지 배제된 고가방식을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토론 참여를 기피해 패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p> <p>사이언스콤플렉스 추진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도 마련할 계획이다.</p>	<p>○</p>	

	<p>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패널의 구성이 대전발전연구원과 교통연구원의 전문가로만 되어, 결정된 트램방식에 대한 장점만을 부각 설명함으로써 토론프로그램의 효과가 미흡했으며, 고가방식을 주장하는 전문가를 패널로 포함했으면 더욱 유익한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p> <p>향후 토론 주제로 최근 대전시의 현안중 하나인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사이언스 컴플렉스 추진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대전시/과학기술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추진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명수).</p>			
<p>보도</p>	<p>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이 법제처를 비롯한 5개 중앙행정기관과 산업연구원을 포함한 11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으로 올해 모두 마무리 된다. 이에 수반된 이전 인원만 4,627명에 이른다. 또한 세종시 건설 초기 정주여건의 미비로 생활의 불편함은 많았으나 이제는 주변 아파트단지의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속속 들어오고 생활편의시설의 증가로 이제는 제법 도시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과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세종시의 성공여부가 자족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p> <p>바로 이러한 문제를 [12월14일, 세종시 신구도심 균형발전해야], [12월15일, 세종시 성공여부, ‘자족성 확보’에 달려다]로 대전 MBC 뉴스데스크에서 기획보도로 다루었다.</p> <p>우선 [12월 14일, 세종시 신구도심 균형발전해야] 보도편에서는 세종시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지면서 신도심과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세종시에서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으로 청춘조치원프로젝트, 기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활용을 소개하며 문제는 국비와 민간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도하였다.</p> <p>또한 다음날 12월 15일에는 [세종시 성공여부 ‘자족성 확보’에 달려다]로 다루면서 세종시의 가장 큰 과제는 자족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2030년 50만명의 도시를 이루기 위한 자족성 확보방안으로 세종시 5개 권역과 4생활권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p>	<p>세종시로 부처 이전이 공식적으로 완료됐지만, 미래부 등 미이전 부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무원의 이주가 지지부진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p> <p>앞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책 등에 대한 보도물을 강화할 계획이다.</p>	<p>○</p>	

	<p>획을 소개하고 완벽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마무리 하였다.</p> <p>하지만 12월 15일 기획보도는 아쉬움이 많았다. 세종시 성공여부가 자족성 확보에 달려있다고 보도하면서 자족성 확보방안으로 세종시 5개 권역과 4생활권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소개하였는데 자족성 확보방안 내용으로는 다소 빈약했다.</p> <p>현 시점에서 세종시가 하나의 도시로 자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산업시설과 기업체, 민간연구소, 대학 등의 투자 유치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세종시와 행복청의 &lt;세종시 자족방안 확충 계획과 노력 그리고 미비점과 성과&gt;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했어야한다고 본다.</p> <p>KBS 대전방송총국에서는 12월 20일(특집, 세종시 명품도시의 과제는? (오후7시20분 방영)를 다룬다. 특집으로 50 여 분간 방영하는 내용과 대전MBC의 기획보도와는 시간상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 기회가 된다면 세종시와 행복청의 세종시 자족방안 확충 계획과 노력 그리고 미비점과 성과를 소개해 주었음 한다(장백기).</p>				
교양	<p>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건강상식을 전해주는 “건강플러스”에 대해 아쉬운 점을 듣고 싶다. 홈페이지에 인터넷 건강상담 코너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주요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및 예방법 등 의학정보 및 건강상식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는데, 전혀 제공되는 것도 없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시청자들도 없다는 점이다(주로 인터넷 상담은 대전MBC 의료 포털에서 실시간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이곳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안내멘트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한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성정모).</p>	<p>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는 현재 방송 홈페이지와 MBC 닥터인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서로 링크하여 미처 전달하지 못한 의학 상식을 보충하고 있다.</p> <p>미비된 점은 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p>	○		
교양	<p>“허참의 토크 앤 조이”는 대전MBC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지역출신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초대해 인사들의 삶, 노력과 희생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쇼이다. 12월 6일 방송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독립기념관 관장이 출연하였는바, 요즘 젊은 세대 젊은이들이</p>	<p>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편성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과 함께 다양한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편성하고 있다.</p> <p>보다 다양한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참고 하겠다.</p>	○		

	<p>나라에 대한 애국이 무엇인지 자주적 독립을 위한 개개인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다. 다만 방송시간이 토요일 오전이었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 시청자들이 이에 공감하였을가’라는 생각을 하면 아쉬움이 남는다(성정모).</p>			
<p>보도</p>	<p>지역방송이 중앙방송을 중계만 해주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역자체의 현황과 문화생활, 문제점과 이슈 등을 보도하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는 방송이야말로 이 시대 지역방송이 다양한 케이블 방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다가오는 올미년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발로 뛰고 더 노력하는 대전 MBC가 되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 재미를 주는 방송이 됐으면 한다(성정모).</p>	<p>지역의 이슈를 담아내고,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물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언론의 기능 또한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p>	<p>○</p>	
<p>교양</p>	<p>가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퇴근길 이동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본격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오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시대공감”이 출근 시간대에 사라진지 거의 3년여 만에 등장한 저녁시간대의 시사 프로그램 등장이 조금은 서막하다. 뉴스 브리핑, 교통 날씨정보를 부제로 곁들이고 주요 이슈의 진단과 분석이 주제인 ‘이슈 앤 포커스’가 정점인 듯싶다. 여기에 요일별 테마 선정, 월말 코너인 ‘탐사 집중기획’은 생방송 오늘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게 한다. 어렵사리 부활한 시사 프로그램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한편으로는 몇 년 만에 선 보인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의 의욕이 우려되기도 한다. 지난 시사 프로그램보다 늘어난 시간에 너무 많은 아이템을 담으려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퇴근길 이동인구를 주 대상으로 본다면 퇴근길 청취자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날의 이슈와 화제에 연관해 노래를 선곡한다는 ‘오늘의 노래’도 좋은 시도로 여겨진다. 처음에 다소 걸도는 듯 했던 진행자도 과거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쉬운 점은 진행자의 톤, 스피드 등등이 너무 시사 프로그램답다는 것이다. 툭툭 튀던 진행자의 캐릭터는 어쩔 수 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묻혀 가고 있다(김학선).</p>	<p>라디오의 저녁시간대 신설 프로그램인 &lt;생방송 오늘&gt;은 제작진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프로그램이다. 아침 출근시간대 시사프로그램의 대명사였던 &lt;시대공감&gt;을 폐지한 이후, 오랜만에 다시 시작된 시사프로그램은 전보다 알차고, 신속하고, 더 친밀한 방송으로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딱딱한 시사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친밀한 시사 프로그램을 위해 진행자부터 코너까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시사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친밀한 접근을 위해 많은 의견 제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p>	<p>○</p>	

<p>보도</p>	<p>사건사고를 전하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당했다’ ‘부상했다’ 등의 표현 중에 ‘뭐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한다. 부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몸에 상처를 입음’이라는 뜻인데 ‘부상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상처를 입는걸 입었다’로 의미가 중복 된다. ‘부상하다’가 표준어 이긴 하지만 표준 국어대사전의 다수 예문에 ‘부상을 입다’가 제시돼 있긴 하다. 그렇다하더라도 표준어 사용을 중시하는 방송언어에서 ‘부상을 입다’ ‘부상을 당하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문에서는 ‘부상했다’로 표기하고 있다. ‘다치다’로 표기해도 좋을 듯싶다(김학선).</p>	<p>현재 대전MBC 뉴스의 방송용 원고는 데스크에서 가급적 맞춤법 검사를 통해 출고시키고 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확인을 통해 우리말 바른말을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p>	<p>○</p>	
<p>교양</p>	<p>‘TV특강’을 보면 방청객들이 주로 가정주부이다. 30대에서 50대로 구성된 방청객들과 강의 주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도한 리액션, 과장된 웃음 등이 눈에 걸린다. 강사가 칠판에 글을 써가며 강연을 하는데 이는 정말 아닐로그식이다. ppt를 사용해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한다. 형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로드 다큐식이나, 실제 강연장에서의 강연녹화라던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송인덕).</p>	<p>&lt;TV특강&gt;은 지역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특성과 주시청자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동제작 회의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p>	<p>○</p>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시민대학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시민대학은 행정,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받는다. 시민대학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대전의 도마동, 법동, 가오동 등지에서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운영되었다. 시민대학으로 인해 기존의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대학을 소개할 때 평생교육문화센터도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었다(유덕순).</p>	<p>시민대학뿐 아니라 평생 교육센터 문제에도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p>	<p>○</p>	
<p>보도</p>	<p>대학에 몸담고 있어 ‘위기의 대학 돌파구는 있는가?’라는 세미나를 종종 접한다. 지역방송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할 듯싶다. 금년은 창사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좋은 콘텐츠는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된다. 앞으로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스스로 혁신하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김형주).</p>	<p>보도국 각 기자가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애쓰고 있습니다. 각 출입처 및 기자별 정보와 아이템 공유 등을 통해 보다 나은 뉴스를 위해 노력중이다. 위원님의 염려를 격려로 받아들이고 좋은 아이템 개발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p>	<p>○</p>	